

■ 2003년 AI 첫 발병 나주 민중환씨의 제언

“반값도 안되는 살처분 보상금 올려야”

“시민들 믿고 소비해 주는게 가장 큰 힘”

지난 2003년 전남지역에서 조류독감(8천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오리 새끼 구입비와 사료비만을 겨우 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종계·육용계·종란으로 나눠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나, 민씨는 농가 입장에서 절대 부족한 액수라고 말한다. 문제는 다른 데도 있었다. 파동이 후 재입식을 하려고 했지만 농림부에서 “재발병할 우려가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며 막았다. 그해 1년 동안 오리 농사를 못 지었다. 이때 손해 본 돈만 8천만~1억원에 달한다. 민씨는 10개월 뒤인 다음해 1월에야 다시 오리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조류독감 파동이 일어나면 방역비만 4배가 넘는다. 한번 입식에 70만~80만원이 든다.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약도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농민을 믿고 많이 사먹었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거든...”

민씨의 경험담은 조류독감 방역작업에 한창인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충고며 부탁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부 보상금은 마리당 3천500원으로 시가(8천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오리 새끼 구입비와 사료비만을 겨우 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종계·육용계·종란으로 나눠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나, 민씨는 농가 입장에서 절대 부족한 액수라고 말한다. 문제는 다른 데도 있었다. 파동이 후 재입식을 하려고 했지만 농림부에서 “재발병할 우려가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며 막았다. 그해 1년 동안 오리 농사를 못 지었다. 이때 손해 본 돈만 8천만~1억원에 달한다. 민씨는 10개월 뒤인 다음해 1월에야 다시 오리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조류독감 파동이 일어나면 방역비만 4배가 넘는다. 한번 입식에 70만~80만원이 든다.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약도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농민을 믿고 많이 사먹었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거든...”

민씨의 경험담은 조류독감 방역작업에 한창인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충고며 부탁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지난 2003년 전남지방에서 맨 처음 조류독감이 발생한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재생마을 민중환씨 오리농장 앞. 입구에 '방역 상 출입금지'라고 적힌 커다란 팻말이 붙어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예비비 투입 AI 방역 강화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닭·오리고기 시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이후 738개 공동방제단을 동원, 매주 수요일 지역 내 닭·오리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비 2억8천만원을 긴급 투입해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철새가 머무는 내년 2월 말까지 닭·오리농장 1일 1회 예찰, 오리 혈청검사 지속 실시 등 AI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전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과장 및 지역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철새도래지 분변 200점, 오리혈청 1천300건에 대한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제는 겨울인가...
고기압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꺼졌다.

11월 30일
(음 10월 10일)
◇전국날씨

서울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9:39 썰물 < 02:44
목포 밀물 < 22:04 썰물 < 15:10
여수 밀물 < 04:55 썰물 < 10:52, 17:18 썰물 < 23:35

▲해돋이 07:21 ▲해질 17:21 ▲달돋이 14:02 ▲달짐 01:3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씨						
최저/최고	2/10	-1/6	-3/6	-3/7	-1/8	1/10

司試 전남대 20명·조선대 3명 합격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올해 치러진 제48회 사법시험에서 전남대 20명, 조선대 3명 등 모두 23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의 경우 재학생 4명, 졸업생 16명 등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8명이었다. 전국 대학 중 8번째로 많은 합격자 수다. 조선대는 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대
▲강성일(32·법학과 94학번) ▲곽현준(31·법학과 95) ▲김대윤(38·법학과 88) ▲김대일(31·법학과 95) ▲김성모(31·법학과 95) ▲김소레(여·27·법학과 99) ▲김재용(46·철학과 94)

▲김정희(32·법학과 94) ▲배은창(26·법학과 00·3학년 재학) ▲배인기(36·법학과 90) ▲선진혜(여·32·일어일문 94) ▲윤명화(여·25·법학과 01·4학년 재학) ▲이새나(여·28·법학과 98) ▲이효상(26·법학과 00·4학년 재학) ▲임주영(여·29·법학과 97) ▲전상미(여·31·법학과 95) ▲정성재(28·법학과 98·4학년 휴학) ▲조영희(여·32·법학과 94) ▲채보화(여·27·법학과 99) ▲홍현수(34·법학과 92)

◇조선대
▲권형철(33·회계학과 92) ▲김영미(여·33·법학과 96학번) ▲김성준(33·법학과 93)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통합논술 교육 본격화

광주시교육청이 대학 입시의 관건이 되고 있는 통합논술 교육 강화에 본격 나섰다.

시 교육청은 오는 12월1일 오후 7시40분 광주일고 대강당에서 고등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 중에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곧 논술시험을 볼 고3 수험생 21명도 포함됐다. 모두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들이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생에 대해 내년 2월23일까지 3개월 동안 광주시 동구 동명동 광주시과학교육원 내 광주교육아카데미연구소와 일선 학교 등에서 논술을 집중 교육한다. 강사진은 광주시 논술교육연구회 소속 교

사 5명이다. 논술교육연구회는 광주 지역 일선 고교 논술 지도 교사 20여 명이 구성된 연구모임. 세미나 개최·교재개발·사이버논술강좌 등을 실시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교육 논술교육의 모델로 인정받았다.

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 교수나 서도 유명대학 교수 초청 특강도 종종 실시한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우선 고3 수험생 21명의 경우 시험이 임박한 만큼 대학별 맞춤형 논술교육을 실시, 대학 진학을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 및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지도는 물론 40여 명의 일선 학교 논술 지도교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국산 수소전기차 버스 첫 공개...시험운행

산업자원부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소연료전지 버스(사전)를 첫 공개하고 실증운행에 들어갔다.

이날 공개된 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작한 국산 수소 연료전지 탑재 제품으로, 다인라-크라이슬러, 도요타-히노사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된 것이다.

이 버스는 40kg의 수소를 한번 충전하면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어 디젤엔진 버스에 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영하 20도 이하 냉온에서의 시동성 개선이 필요한 상태. 특히 시제품인 탓에 제작 단가가 30억원에 달해 일반 버스보다 최고 30배나 높다.

/연협뉴스

35년만에 고문수사 인정 '김익환 일가 사건'

은가족 고문 후유증 처참한 생활

“마음속의 ‘큰 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지난 28일 ‘김익환 일가 고문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김익환씨의 조카 김기용(48·사진·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29일 광주일보사를 찾아와 처참했던 가족사를 들려줬다.

기용씨의 어머니 강덕례(67)씨, 큰아버지 김익환(77)씨, 사촌 누나(60)는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섬마을에서 살던 중 지난 1971년 9월20일 ‘날벼락’을 맞았다.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여수출장소 소속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조사실로 끌려간 것. 간첩으로 의심되는 이기철(가명)씨를 도와줬다는 혐의였다.

어머니 등은 7일간 온갖 폭언과 끔찍한 고문에 시달렸다. 미혼이었던 사촌누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성학대를 받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풀려났지만, 후유증은 컸다.

사촌누나는 충격으로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채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덕례씨는 한쪽 눈을 잃었고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없게 됐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기용씨는 지난 2001년에서야 어머니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들었다. 풀려날 당시 “의부에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는 바람에, 아들에게도 숨겼던 것이다.

기용씨는 정수기 수리업체인 ‘(주)태영’의 광주·전남 지사장을 내광개치고 관련 자료를 모았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말 뿐이었다.

그의 합당한 명예찾기는 ‘신동아’(2004년 11월호)에 소개되기도 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세계 최고 인재들과 겨루고 싶다면
北京大學에 도전하십시오.

북경대학으로 가는 길...
희망한다면 중국어 사정학교에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중국어학원 中國語學院
www.chinese518.com

전화번호: 333-9582

TOEIC 만점의 꿈!
‘동아외국어’가 도와 드립니다.

TOEIC 만점의 꿈!
‘동아외국어’가 도와 드립니다.

TOEIC 만점의 꿈!
‘동아외국어’가 도와 드립니다.

TOEIC 만점의 꿈!
‘동아외국어’가 도와 드립니다.

062-222-6233 www.donga.tv

외국어학원 東亞外語學園
동아외국어학원